





서가풍경

# 《조선왕조실록》과 함께 한 반평생

드라마 작가 신봉승씨의 서가

드라마 작가이자 역사소설가인 신봉승씨(68)의 서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은 단 두 종류였다. 《조선왕조실록》과 《승정원 일기》. 검은 표지의 이 책들은 서가 한쪽 벽에 마치 왕의 가신처럼 엄숙한 얼굴을 하고 일렬로 '도열' 해 있었다. 그가 부르면 언제라도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와 그의 명을 받들 자세로 서 있는 것이다.

"1971년 TBC 방송에 <사모곡>을 쓴 이래 지금까지 역사극만 30년 가까이 써왔습니다. 1984년 영인본 《조선왕조실록》(탐구당)이 완간됐죠. 이 책이 없었다면 9년 9개월에 걸친 <조선왕조실록>의 장대한 드라마는 끝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. 《조선왕조실록》은 언제나 내 손이 닿는 데 있었습니다."

그는 지금까지 오로지 '정사' 만을 토대로 드라마를 쓰고 소설을 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. 또한 드라마 <조선왕조실록>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이 드라마가 있기 전까지 '이조 500년' '이조백자' 라는 말을 썼지만, 이 드라마가 방송된 이후 '조선왕조' '조선백자'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

최근 그는 조선의 당쟁사를 소설화한 《조선의 정쟁》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. 이 소설을 통해 조선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, 지금의 혼탁한 정치판에 경종도 울리고 싶단다.

그가 평생 수집한 조선왕조 관련 서적들과 자료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. 그는 고향인 강릉에 이 자료들을 기증할 계획이다. - 최갑수 기자

